

# 中 의존 97% '흑연' 공급망 확보... 연간 전기차 126만대분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산업부,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포스코인터내셔널, 호주 BRM과 4000만 달러 규모 투자계약 체결 탄자니아 마헨게 광산 개발 투자 "흑연 공급망 상당수준 다변화"

우리나라가 연간 전기차 126만대 분량의 천연흑연을 확보했다. 중국 수입 의존도가 97%에 달했던 흑연 공급망 위기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호주 퍼스 크라운 타워스에서 열린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아프리카 탄자니아 마헨게(Mahenge) 광산 소유사인 호주 BRM과 4000만달러 규모 투자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뒷줄 오른쪽)과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뒷줄 오른쪽 두 번째)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앞줄 오른쪽)와 블랙록마이닝 리차드크로스 이사회의장(앞줄 왼쪽)이 협약식을 체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번 '한-호 경제협력위원회'는 양국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10주년을 계기로 열렸으며, 계약식에는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매들린 킹 호주 연방자원장관, 장인화 포스코그룹회장이 참석했다.

이에 따라 포스코그룹은 포스코홀딩

스가 이전에 투자한 750만달러에 더해 그룹사 차원에서 BRM 지분 19.9%를 보유하게 됐고, 탄자니아 마헨게 흑연 광산 개발 투자로 연간 전기차 126만대 분량의 흑연 공급망을 확보했다.

이번 계약으로 흑연 매장량 600만톤 인 세계 2위 규모 마헨게 광산 개발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포스코그룹은 2026년부터 연간 3만톤, 2028년부터는 추가로 연간 3만톤 등 최대 연간 6만톤, 전기차 126만대 분량의 천연흑연을 확보한다.

우리나라의 2023년 기준 천연흑연(음극재에 사용되는 인산흑연 등) 수입

량이 약 5만톤이며 이는 중국에 97%를 의존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으로 흑연 공급망이 상당수준으로 다변화돼 공급망 위기 가능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계약은 정부가 지난해 2월 핵심 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한 후 기업과 손발을 맞춰 흑연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해온 결실로 평가된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투자계약으로 굳건한 한국-호주 경제협력의 상징으로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핵심광물 중 하나인 흑연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공급망에 존재하는 다양한 제약 여건을 돌파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향후에도 정부는 세제, 금융 지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자원의외교로 기업의 리스크는 덜어주고 성과는 더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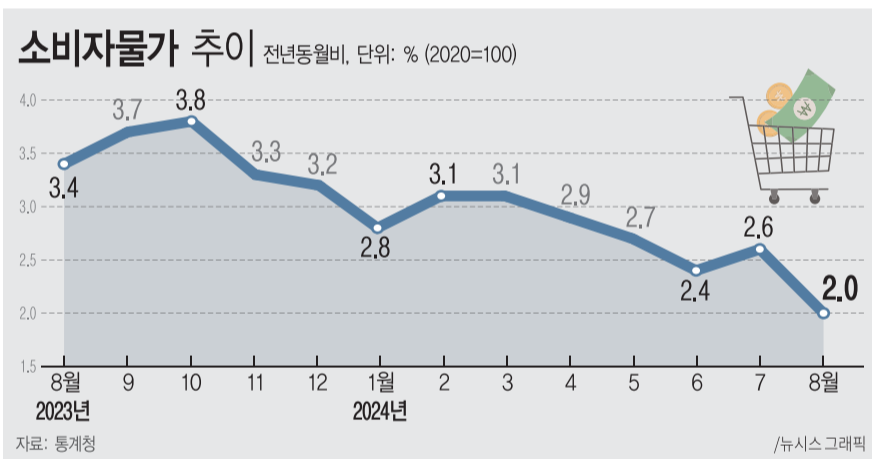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 상승률 2%... 41개월來 최저폭

통계청, 8월 소비자물가 동향 농산물·석유류 오름폭 둔화 영향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로, 3년5개월 사이 최저로 내려앉았다.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의 오름폭이 둔화된 영향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월(2.4%)에 이어 하반기 들어서도 두 달째 2%대를 유지하며 안정화하는 흐름이다. 그러나 채소와 과일 값은 여전히 '장바구니 물가'에 부담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4.54(2020=100)로 1년 전보다 2.0% 올랐다. 이는 2021년 3월(+1.9%) 이래 41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 폭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3.1%)과 3월(3.1%) 3% 선을 넘어선 이후 4월(2.9%), 5월(2.7%), 6월(2.4%), 7월(2.6%), 8월(2.0%) 등 5개월 연속으로 2%대를 유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년5개월 만에 최저 상승"이라며 "지난달에 비해 전기·가스·수도는 올랐지만 유가 상승 폭이 많이 축소됐고 농산물도 많이 축소됐다"라고 설명했다. 품목별로, 공업제품 물가가 1.4%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47%포인트(p)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은 2.4% 상승했다. 물가 기여도는 0.19%p였다. 이 중 농산물은 3.6% 올라 전월(9.0%)에 비해 상승 폭을 줄였다.

석유류 물가는 0.1% 상승해 전월(8.4%)대비 상승 폭이 크게 줄었다. 국제유가 하락세의 영향을 받은 데다 1년 전 상승 폭이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겹쳤다. 전체 물가 기여도 또한 0.31%p 하락했다. 반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는 16.8% 올라 2022년 7월(21.4%) 이후 2년1개월 사이 가장 가파른 오름세를 보였다. 서비스물가는 2.3% 오르며 전월(2.3%)과 같은 수준을 보였다. 이 중 공공서비스와 개인서비스 물가는 각각 1.4%, 3.0% 상승했다. 외식물가는 2.8% 올라 전체 물가 상승

폭을 웃돌았다. 구입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은 14개 품목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나타내는 생활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1% 올랐다. 전월대비로는 0.5% 올랐다.

이른바 '장바구니 물가'를 보여주는 신선식품지수는 지난달 3.2% 오르며 7월(+7.7%)보다 상승 폭이 크게 축소됐다. 지난 7월 21.3%를 기록했던 신선과실 상승 폭도 지난달 9.6%로 둔화했다. 다만 배(120.3%), 사과(17.0%) 등은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통계청 관계자는 "배는 최근 상승 폭이 축소되고 있다"며 "햇과일이 출하되면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SK온-현대차, 美서 배터리 합작공장 건설

>> 1면 '美 전기차 시장 성장...서 계속'

합작공장 가동 전까지는 SK온 단독 미국 공장이 HMGMA(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배터리를 공급할 방침이다. SK온은 현재 현대차그룹과 함께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합작공

장을 포함해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와 테네시, 켄터키 지역에 총 127GWh 규모의 공장 3개 등 총 4개의 공장을 152GWh 규모로 건설 중이다.

SK온은 현대차그룹과 함께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합작공장을 포함해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와 테네시, 켄터

키 지역에 총 127GWh 규모의 공장 3개 등 총 4개의 공장을 152GWh 규모로 건설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에 맞춰 공장 가동 일정과 생산 지역을 유연하게 조정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 내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현지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지현정 기자 hyeon@

## 2030 교사 86% "월급 적어 이직 고민"

20·30대 교사 10명 중 9명은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 수준에 만족하는 교사는 0.7% 그쳤다. 교사들은 월급을 최소 10% 인상하고, 교직 수당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직무대행 문태혁)는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유·초·중·고교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우 불만족' 응답이 6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불만족'한다고 답한 교사도 27.9%를 차지해 교사 92.9%가 보수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 4603명 월급 만족도 설문 총 92.9% 보수에 '불만족' 답변 55.7% "월급 7.2% 이상 인상해야"

'월급 때문에 이직을 고민한 적 있는 나'는 물음에는 86%나 '고민한 적 있다'고 답했다.

최근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5급 이상'의 경우 2.5%, 6급 이하의 3.3%를 제시한 가운데, 이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1.1%에 불과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난 4년간 ▲2021년(0.9%) ▲2022년(1.4%) ▲2023년(1.7%) ▲2024년(2.5%) 수준에 머물렀다.

조사에 응한 교사 중 55.7%는 '월급이 7.2%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답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총은 최근 3년간 보수 인상률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실질 보수 인상률'을 '-7.2%'로 잡고, 이를 기준으로 질문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적어도 10% 이상 인상(31.5%) ▲적어도 5% 이상 인상(11.7%) 순으로 나타났다. 20·30 교사 10명 중 9명이 7.2% 이상 인상돼야

한다고 답변한 셈이다.

공무원(혹은 사학) 연급에 대해서는 '기대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이 93.9%에 달했다. 반면, '퇴직 후 기필 수 있는 정도'라는 답변은 3.3%에 그쳤다. 이를 두고 교총은 "공무원 연급 개편이 이뤄지면서, 젊은 교사일수록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전국 10개 교육대학 자퇴생이 621명에 달하며 4년 만에 3배가 증가하는 등 '교사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은 교직 이탈 예방과 우수 교원 확보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로 '확실한 처우 개선'(53.9%)을 1순위로 꼽았다.

교원 대표가 참여하는 교원보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95%가 찬성했다. 현 공무원보수위원회는 교원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교총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총은 교원 보수는 10% 이상 인상하고, 24년째 동결된 교직 수당도 기존 25만원에서 월 40만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무조건 월급을 올려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합당한 보수 인상과 수당 현실화를 통해 교단의 사기를 올리고 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달라는 호소"라며 "현행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에는 교원 보수를 우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에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에도, 모든 교원의 처우와 직접 연관된 교직수당은 무려 24년째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오후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 ▲현재 7.8%인 교장·원장 관리업무수당을 4급 일반직공무원 수준인 9%로 인상 ▲교장·원장 직책수행경비 20만원 신설 등을 담은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인사혁신처에 전달했다. /이현정 기자 ihj@